

한국의 전통 가정교육과 천도교

임 형 진

(경기대학교)

<요약>

동학은 조선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유교의 교육대상에서 제외된 공부하지 못한 자, 돈이 없는 자, 여자, 어린이 그리고 신분이 낮은 대다수의 민중을 대상으로 修己와 성인군자가 될 수 있는 방법과 세계관을 제시해 주며 등장했다. 동학과 천도교는 이러한 도의 전수를 사회구조의 기초 단위인 가정의 실생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천도교에서는 이것을 家庭布德이라 한다.

천도교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하늘과 동등한 관계임을 인정하는 시천주와 따라서 인간을 하늘처럼 대하라는 사인여천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출발한다. 그리고 그것은 가정에서부터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천도교의 家和가 그것이다. 수운 최제우는 득도 후 가정포덕을 가장 먼저 실천하여 부인과 자식 그리고 집안의 하인들에게 천도를 실행하였다. 그것이 보국안민과 광제창생의 첫걸음이었다. 동학의 평등적 인간관은 이전 사회에서 차별되고 미천한 취급을 받던 부녀와 어린이에게도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두어 도인들에게 법설을 할 때마다 부녀와 어린이도 평등한 한울님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동학의 道通의 근본을 부부의 평등에 두고 모든 도인들은 가정 안에서 自尊과 완력으로 군림하던 태도를 완전히 벗어 던지고 부인 앞에서 절을 하면서 자신을 최저로 낮추라고 하였다. 인간평등론 입장에서 부부의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한 가정의 실질적인 주인은 주부라고 생각하면서 주부의 가정에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것이 侍天主와 事人如天의 출발점이다. 이런 가운데서 이루어진 가정교육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될 것임을 천도교는 자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천도교 가정교육은 수심정기의 수행을 중시한다. 그것은 성·경·신을 훈련하는 것이고 경천·경인·경물의 사상을 체현하는 과정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상적인 인격자를 완성하는 천도교의 가정교육은 그래서 시작은 있지만 종결이 없는 과정이 된다.

그러나 천도교 가정교육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어른들의 모범이다. 이른바 ‘모범의 교육(teaching by example)’ 보다 더 훌륭한 교육방법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수운 최제우의 가정 포덕에서부터 해월 최시형의 사인여천의 삶, 의암 손병희의 인내천까지 모든 천도교

인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러한 ‘모범의 교육’의 교육이야말로 천도교 가정교육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핵심주제어 : 시천주, 사인여천, 수심정기, 성경신, 삼경

Traditional Home Education and Chondogyo in Korea

Rim Hyung-Jin
(Kyunggi University)

<Abstract>

Tonghak emerged in Chosun society with educating the governed who was in low position, the poor, children and women. They was excluded the formal education of Confucian system in ideology of Chosun Dynasty. The education program of Tonghak was included the view of world and paradigm in self-discipline, becoming great leader and character. The first importance in education was in family education which was the basic unit of social structure. Chondogyo propagation come from family education.

The preaching of Chondogyo is rooted on the view of human being and the heaven as original one. Therefore there are beliefs in Sichonchu and Sainyuchon. These concept is consisted of ‘serving god in my mind’ and ‘to serve another man is to serve god’ These belief was considered as the first importance in family education. It is so called gahwa(home peace) in Chondoo. The founder, Soowoon, Choi Je-Wooconsisted the importance of family propagation after he enlighten the way of life. The obscured of Chosun rank society including women and children are, he thought, Hanulnims. the teaching of Chondogyo consists the equalitarian relations of husband and wife. The virtues in Chondogo are Sung(sincerity), Kyung(reverence) and Shin(believing). A man of virtue was consisted in home daily life. The discipline of self is the first step in family peace makeup. There is launching step but no ends in family education.

Tonghak proclaimed undertake the task of moral reform in human consciousness of the grassroots people by utilizing its religious disciplines. To realize the idea they urged the family education. And to care family life is the main idea in preaching.

However, family educations in Chondogyo is urged the education of ‘teaching by example’ by their leaders. The adults must act as a man of virtue. Soowoon, Choi JeWoo preached ‘family propagation’, Haewol, Choe Shi Hyung served his followers as the mind of ‘to serve another man is to serve god’, and Uiam, Son Byung Hee lived as the great master in ‘human being is the heaven’ creeds. These great leaders are respected as the model of self-discipline to their followers. The daily life of ‘teaching by example’ is the main preaching and shows the

greatness of family education in Chondogyo.

Key words: Sichonchu, Sainyuchon, Hanulnims, Sung(sincerity) · Kyung(reverence) · Shin(believing)

I. 머릿글

동학이 창도되는 19세기 중엽은 대외적으로 제국주의가 강화되는 시기였고, 대내적으로는 조선사회의 부패로 인한 사회체제전반의 붕괴가 시작되는 시대였다. 특히 23대 순조부터 25대 철종 때까지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가 극에 달해 온갖 부패가 자행되고 있어 뜻 있는 선비들을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있었으며 때를 이은 기근과 역질은 민생을 도탄으로 휘몰고 대다수를 유랑민화 하고 말았다. 이 같은 민중들은 당연히 메시아적인 구원자를 갈망하게 되었고 당시 유행하던 정감록이나 홍경래의 난, 잦은 민란 등이 그들의 희망을 대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조선 지배층의 학정과 사회구조적 부패에서 벗어나려는 민중의 새로운 사고가 동학으로 창도된 것이다.

당시의 지배이데올로기랄 수 있는 유교는 성인·군자·현자에 이르는 도학이며 이러한 학문의 수학과 교육, 즉 敎·學이나 修己·治人은 참여하는 인간의 자발적 창성의성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修己治人之學이 요청된 것 자체가 인간의 불안정성과 사회성을 전제로 한 것이며 따라서 유교교육은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인간을 교육하는 소위 정치적인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치가 시작되자마자 인간통치(治人)는 강제성을 띄게 마련이어서 마침내 수기치인은 힘의 대결에 귀착하고 말게 된다. 여기에 유교는 이미 그 본질적인 성격을 상실하여 강자는 법가적인 변신을 불사하며 약자는 도가나 불가에 구원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유교적 이데올로기는 통치의 윤리이고 통치자들 간의 윤리이며 일반 민중에 이르면 오직 정치적 영역만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뿐이다.¹⁾

따라서 이러한 유교적 이데올로기는 가정윤리와 국가윤리를 별개의 영역으로 치지 않았다. 그들은 국가를 가정의 확대체라고 생각했다. 가정윤리의 원리가 국가윤리에 그대로 적용된다. 『大學』에서 “부모에 대한 효는 임금을 섬기는 원리이고, 형에 대한 공

1) 申午鉉, 「비판적 입장에서 본 유교 윤리」, 『한국인의 윤리관』,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45-46쪽.

경은 어른을 섬기는 원리이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자애는 곧 임금의 신하를 부리는 원리이다”²⁾고 하였다. 유교의 오류는 그것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다. 결국 유교사회는 인간질서 즉, 오류를 선양하는데 지나지 않고 그것을 위해 모든 정치·경제·교육이 존재하는 “인류의 사회”이고 그것은 상하 질서사회를 형성해 수직적인 위계적 사회구조를 수립해 놓았다. 이러한 사회체제 속에서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중은 모든 사회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다. 동학은 이들에게 절대적인 지지 속에서 출현했다. 특히 內聖外王之道의 실현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공부하지 못한 자, 돈이 없는 자, 여자, 어린이 그리고 신분이 낮은 대다수의 민중에게 동학의 가르침은 修己와 성인 군자가 될 수 있는 방법론이자 새로운 세계관의 전개이었다.

동학은 이러한 새로운 도의 전수를 사회구조의 기초단위인 개인과 가정의 실생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런 점 때문에 동학은 창도이후 불같은 기세로 전국의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에 한울님의 도를 포덕시킬 수 있었다. 오늘의 천도교가 유난히 개인의 윤리와 가정윤리를 중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것은 기존의 전통적인 유교적 질서의 파괴이면서도 보완이고, 근대적 의식의 자각과 실천이었다. 새로운 동학적 질서의 출발은 가정이었다. 특히 가정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고정관념들의 변화는 동학이 추구하는 천도가 실현되는 서곡이었다.

천도교에서는 이것을 가정포덕이라 하여 대단히 중시여기는 데 이는 무엇보다도 천도가 가정에서 가정으로 포덕되어야만 이웃과 이웃이 동귀일체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전체의 동귀일체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은 신앙생활의 실현뿐 아니라 개인의 인격의 성패가 좌우되는 곳이기에 더욱 중시되는 것이다. 본 교에서는 전통적 가정교육에 대한 동학과 천도교의 새로운 가정교육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천도교 교육의 기본이념

1. 侍天主思想

수운이 1860년 경주 용담에서 4월 5일 11시에 대각 또는 천명을 받을 때 “몸이 매우 떨리고 추우며 밖으로 신령을 접촉하는 기운이 있고 안으로 말을 내리는 가르침이 있어서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여 물었더니 한울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2) 『大學』, “孝者 所以事君也 弟者 所以事上也 慈者 所以事衆也”.

곧 네 마음이니라”³⁾이라고 했다. 즉, 한울님 마음이 너, 사람의 마음이란 뜻이다.

이것이 시천주사상이다. “모든 존재(만유)는 천주(한울님)를 侍하고(모시고) 있는 존재이다.” 수운은 “侍라는 것은 안에 神靈이 있고 밖에 氣化가 있어 온 세상 사람이 알아서 옮기지 못하는 것이다”⁴⁾라고 하였다. 결국 ‘內有神靈’과 ‘外有氣化’를 알고 섬기는 것이 한울님을 모시는 것이 된다.

‘내유신령’과 ‘외유기화’의 뜻을 해월은 “내유신령은 처음에 세상에 태어날 때 갓난 아기의 마음이요, 외유기화는 포태할 때에 이치와 기운이 바탕에 응하여 체를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밖으로 접령하는 기운이 있고 안으로 응화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과 至氣今至 願爲大降이라 한 것이 이것이니라”⁵⁾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내유신령’은 출생과 함께 성립되고, ‘외유기화’는 포태할 때 성립됨을 알 수 있다.

‘내유신령’은 사람이 태어날 때 비로소 발하는 마음이요, 이 마음이 신령한 ‘한울님 마음’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외유기화’는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포태할 때부터 우주에 깎 차있는 한울님의 기운 즉 ‘지기’의 조화로 이치와 기운이 엉키어 모태의 그 바탕에 응하여 사람을 성체하게 됨을 말한다. 사람의 육신은 한울님의 기운이 외유기화로 어머니 태안에서 터를 잡는 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한울님을 모시게 되는 것은 바로 포태할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시천주의 主자의 해석에 이르기를 “主라는 것은 존칭해서 부모와 같이 섬긴다는 것”⁶⁾이라 하였다. 한울님 모시기를 부모 섬기는 것과 같이 하라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할 때에 내키는 대로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여쭙어서 부모님 말씀에 좇아 행하듯이 매사를 한울님께 심고를 드려서 한울님 뜻에 따라 행하고 어디에 갈 때 또는 돌아왔을 때, 잠을 자거나 일어날 때, 밥을 먹거나 그밖에 무슨 일이든지 일거일동을 부모에게 먼저 고하듯이 천주에게 마음으로 고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큰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화를 내지 말며 효성을 다하여 부모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듯 한울님을 정성을 다해 공경하며 한결같은 믿음으로 극진히 위하는 것이 한울님을 모시는 것이 된다. 수운은 “네몸에 모셨으니 捨近取遠하단말가”라고 하여 마치 집안에 부모를 밖에서 찾지 말고 내 몸 안에 모시고 집안에서 잘 모셔야 하는 것과 같이 천주를 밖에서 찾지 말고 내 몸 안에 모시고 있음을 알고 섬기라고 하였다.⁷⁾

3) 『동경대전』, 「논학문」, “身多戰寒外有接靈之氣 內有降話之教 守心正氣 吾心卽汝心”.

4) 『동경대전』, 「논학문」.

5) 『해월신사법설』, 「靈符呪文」.

6) 『해월신사법설』, 「천지부모」.

7) 노태구, 『세계화를 위한 한국민족주의론』, (서울 : 백산서당, 1995), 294-295쪽.

만일 천주를 믿고 모시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과 한울님의 靈 사이에 큰 영맥이 끊어져서 천주의 뜻에 순응치 못하게 되어 마치 나무의 잎에 줄기의 기운을 받지 못할 때에 스스로 말라죽는 것과 같이 된다고 하여 해월은 시천주의 뜻을 양천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⁸⁾

시천주사상은 인간이 한울님을 모시고 인간 속에 신이 내재한다는 것으로 한울님과 인간은 동체라는 것이다. 따라서 물즉 심, 심즉 물의 지기일원하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천지만유가 사상적으로 同歸一體하는 덕치의 세상이 된다는 것이다. 해월은 이를 ‘人是天’이라 했으며 동학의 3대 교조 의암 손병희는 이것을 ‘人乃天’이라고 했다. 또한 시천주사상은 모든 인간의 평등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천도교는 전통적 사교에 일대 혁명적인 변혁을 일으킨다. 즉, 시천주사상을 통하여 소외되었던 민중들을 내면적으로 ‘한울님을 모신’ 군자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며 이것은 귀천, 상하, 반상의 차별 없이 각자 자기 몸에 한울을 모시면 누구나 평등한 지상의 신선이요 군자가 된다는 것이다. 개개인의 주체화를 이루어 내교 이를 통해 각 개인은 군자가 된다. 봉건적 신분차가 부정되고 모든 민중은 평등한 관계로 재정립된다는 근대적 인권사상의 출현인 것이다. 유교적 신분사회의 질곡을 극복하고 새로운 개벽의 세계는 인간평등을 전제로 형성될 수 있다. 이것은 동학과 천도교의 교육에서도 기본이념으로 자리하고 있다.

2. 事人如天의 倫理

侍天主, 人是天, 人乃天의 思想은 한국민족이 아득한 옛날부터 생각하여온 천신숭배의 신앙이 동학에 이르러 창조적인 모습으로 승화한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하늘과 관련시켜 생각해 오던 우리 민족의 전통사상이 동학에 이르러 ‘사람이 곧 한울’이라고 대담하게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⁹⁾ 시천주사상이 윤리사상에 적용되어 나온 것이 사인여천의 개념이다.¹⁰⁾ 이것은 사람을 한울처럼 대우하고 섬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천도교의 세계관은 대인 관계의 윤리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왔다. 동학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유교적 인간 관계는 상하주종의 관계로 대표된다. 봉건적 양반 질서에서 나와 타인의 관계는 재상자나 재하자나, 내가 군림해서 지배할 것인가 내가 그의

8) 『해월신사법설』, 「양천주」.

9) 오익제, 「동학혁명운동의 현대적 재조명」, 이현희 편, 『동학사상과 동학혁명』, (서울 : 청아출판사, 1984), 517쪽.

10) 사인여천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해월이다. 그의 삶 자체가 사인여천의 삶이었다. 그의 사인여천적 실천이 동학을 하나의 사상으로 자리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하인이 되어 복종할 것인가 등을 먼저 따지는 주종관계만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동학은 그런 신분차등의 인간 관계의 근본에 변혁을 몰고 왔다. 사람이면 상하귀천을 불구하고 시천주자로서 모두 대등하므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한울님으로 대해야 한다는 인간 평등의 윤리를 개척한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인간 관계의 근본은 해월의 나와 다른 사람과의 대인 관계가 ‘사람을 섬기되 한울같이 하라’는 사인여천의 근대적 시민 윤리로 귀결된다. 해월의 사인여천의 윤리에서는 어린이나 당시 천대받던 상민·천민, 남존여비 시대의 아녀자 등이 모두 시천주이므로, 나는 그들을 한울처럼 섬겨야 한다는 ‘경천·경인’의 인간존중주의가 나오게 된다.¹¹⁾

천도교의 사인여천의 윤리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근대적 자각을 깨우치는 인간주체 사상을 보이고 있다. 의암은 수운의 가르침과 그 심법의 중추사상을 인내천이라 하여 이를 천도교의 宗旨로 내세웠다. 인내천은 ‘사람이 곧 한울’이라는 말이며, 이는 ‘天人合一 神人一體’의 진리를 한층 차원을 높여 전개한 것이다. 지금까지 인간과 신을 따로 떼어 보는 데서 신을 높게 보고 인간을 천하게 여기고 신에 예속시켜 왔다. 인내천은 종래의 神본위 神중심에서 사람본위 사람중심의 사상적 일대전환을 의미하게 되었다.

천도교의 인간주의는 사람이 곧 한울이라는 「인내천」의 절대적인 진리에 바탕 함으로써 유물론과 관념론의 모순되는 양극사상을 극복하고 통합하는 데 성공하였다. 천도교의 인간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신격화하여 근원적 자유, 평등의 이념을 실현한다. 이 같은 인간평등은 신에 종속된 평등이나 계급타파의 평등이 아니고 인간을 신의 차원으로 높이는 신인일체의 근원적 평등주의를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사람이 한울님을 모신 주체라는 생각에서 모든 가치의 중심에 사람이 있고 사람이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며 역사창조의 주역이 바로 사람 자신이라고 보는 사람본위의 인간 주체사상인 것이다.

모든 가치의 중심에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신본위이거나 물질본위가 된다. 신본위는 신을 주로 삼고 사람을 신에 대한 종으로 관계짓고 사람을 신에 봉사만 해야 하는 무가치한 존재로서 오직 신의 영광과 신의 의지에 귀속되는 예속의 존재로 전락시키게 된다. 반면 물질본위는 물질에 인간을 예속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관념론의 정신편중 또는 유물론의 물질 편중은 다같이 인간상실의 결함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사인여천의 인간 주체사상은 물심일원으로 보는 「지기론(至氣論)」의 우주관

11) 신일철, 앞의 글, 103쪽.

에 토대하여 정신위주 또는 물질위주의 결합을 근원적으로 극복한 것이다. 이 같은 인간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가치의 중심이요 최고일 뿐 아니라 모든 행위의 주체가 사람 자신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사람의 주체적 결정이 모든 사회현상의 궁극적 원인일 뿐 아니라 역사창조의 주역이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다. 모든 역사 창조와 사회발전 현상의 원인 행위가 신도 아니고 물질(경제)도 아니요, 한울님을 모신 사람 자신에 달린 것으로 보는 것이다.

III. 천도교 가정교육의 목표

1. 守心正氣의 心法

수심정기는 천도교의 敎旨로서 가정교육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仁義禮智는 옛 성인 의 가르친 바요, 守心正氣는 오직 내가 다시 정한 것”¹²⁾이라 하였으니, 인의예지가 先天의 도덕법이라면 수심정기는 後天의 道德法이 되는 셈이다. 그것은 한울님 마음을 회복하여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다.

원래 인간은 한울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후천적으로 욕심과 집착과 습관에 의해 한울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보통 인간이다. 그러나 수운은 시천주를 주창하면서 마음속에 한울님을 본유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가 지적한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수심정기의 경지이며, 한울님 마음을 회복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신비 체험이 아니다. 누구나 본래의 마음이 한울님 마음임을 깨달으면 수심정기가 되고, 수심정기가 되면 한울님 성품을 거느리고 한울님 가르침을 받으며 자연한 가운데 화하여 나온다고 하였다. 이것이 동학의 깨달음이며, 자아완성의 심법인 것이다. 결국 수심정기는 시천주의 구체적인 수양법인 셈이다. 한울님 모셨다는 것을 자각하는 데로부터 한울님 마음이 되어,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보전해 나가는 자율적인 교육방법인 것이다.

수심정기를 하려면 먼저 私心을 벗어나 마음 쓰는 것이 공명정대하고, 늘 자기를 반성하며, 조용히 성내지 아니하고 혼미함이 없도록 마음의 눈을 떠야 한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 있게 하고 항상 남에게 따뜻하고 공손하게 대하는 ‘孝悌溫恭’이 바로 그 방법이라는 것이다.¹³⁾ 천도교 가정교육은 이러한 수심정기의 자세로 시작하여

12) 『동경대전』, 「수덕문」.

13) 김춘성, 『해월 최시형과 동학사상』, (예문서원, 1999), 66-68쪽.

心和氣和의 상태에 이룸을 목적한다. 그런 가운데 기쁜 마음이 되고, 건강한 몸이 되고,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만사가 뜻과 같이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천인합일의 높은 인격을 갖추게 되고, 마침내는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믿는다.¹⁴⁾

2. 誠·敬·信 - 인격 완성의 길

천도교는 성·경·신이라는 유학 개념을 나름대로 재해석하여 교육적 목표로 사용한다. 성경신은 한울님에 대한 정성·공경·믿음을 말하며 일상생활 속에서의 실천덕목을 의미한다. 사람은 정성과 공경 그리고 믿음을 모두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성만으로도 안되고 공경만으로도 안되고 믿음만으로도 안되고 세 가지 모두를 도야함으로써 인격완성을 이룬다고 본다. 성경신을 교육적 목표로 설정함은 그것이 천도가 제시하는 이상적 인간, 지상신선이 되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천도교 가정교육의 목표도 성경신 수양을 통한 인격완성의 실현에 있다.

첫째, 성은 생활의 여러方面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맡은 바 일을 하듯처럼 쉽없이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맡은 바 임무만 수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듯처럼 순수하고 쉽이 없어야 성이라 할 수 있다. 정성은 모든 도덕규범의 주체가 되는 덕목으로 참된 본래의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꾸준히 사명을 관찰해 나가는 성실함을 말한다. 지극하게 성을 다할 때 찾아오는 것이 지성이다. 그러므로 지성을 다하면 성인이 된다. 즉, 지극한 마음을 보존한 정성을 다하여 한울의 성과 차이가 없어질 때 인간은 성인으로 태어난다. 순수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쉬지 않고 정성을 다할 때 얻어지는 결과가 바로 성인의 경지이다.

둘째, 경은 일상생활 속에서 성을 실현하는 구체적 행위 규범이다. 경은 구체적 인간행동의 길잡이이다. 공경은 상대를 높이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하는 겸허의 정신자세를 가지는 관계의 도덕규범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관계없이 홀로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특히 사람은 공경으로 서로 간에 존중하는 데서 상호 협력과 변영과 창조를 이루어 나간다. 공경은 마음가짐이 거슬리거나 어둡지 아니하도록 맑고 깨끗하게 가지며 상대편을 우리러 존중하여 서로 도와 가고 협력하는 자세이다. 수운은 “공경이 되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잠깐이라도 모양함을 늦추지 말라. …내 마음을 자나깨나 두려워하라.”¹⁵⁾하였다. 나아가 해월은 이것을 삼경사상으로 구체화하여 삶

14) 유학적인 지식탐구는 입신출세를 위한 것으로 10년 공부야 요구되나 그것은 양반 소수만을 위한 것이고 동학의 수심정기는 심학의 3년 공부로 도성덕업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용담유사』, 『도수사』).

15) 『東經大全』, 「八節」.

의 규범으로 제시했다. 그는 사인여천을 넘어 한 어린아이가 나막신을 끌고서 딱딱거리며 지나갈 때 자신의 가슴을 쓸어 내리며 아파했고 바닷물도 아껴서 쓰라고 했다 한다. 우주는 하나의 기로 연결된 전체이므로 땅에 아픔을 주는 것이 곧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느껴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해월은 우주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오직 공경하여 한울님으로 모시도록 가르친다. 매사에 한울님을 공경하고 어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곧 경의 길이다.¹⁶⁾

셋째, 신은 실천이자 결과이다. 현실 생활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신이다. 사람의 믿음이 앞서지 않고는 정성이 생길 수도 없고 또 정성스럽고 공경하는 마음이 따르지 않고는 도성덕립은 물론 매사가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이른바 先信後誠인 것이다. 해월은 유학의 기본 강령인 仁義禮智信과 다섯가지 원소인 金木水火土를 들어, 신은 곧 토와 같아 신이 아니면 나머지 네 가지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신은 바퀴의 축이며 성경의 토대임을 강조한다. 신은 수행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신은 물론 한울님에 대한 믿음이다. 순일하고 쉽 없이 일하는 한울님을 매사에 공경하는 생활의 구체화이다. 한울님은 천지만물을 성출하시고 만물 속에 계시며 모든 일을 간섭하고 명령한다는 것을 믿으며 천도의 진리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과 나아가 대인관계에서의 신의를 지니는 것이다.

천도교에서는 수운이 성·경·신의 극치에 이르러 한울에 통했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다고 말한다. 나의 정성이 한울의 성과 일치하였기에 천명을 받고, 공경이 한울에 부합하였기에 한울의 말을 듣고, 생활 속의 한울님에 대한 믿음에 추호의 의심이 없었기에 대성인을 이루었던 것이다.¹⁷⁾ 셋 중 둘이나 하나만으로는 성인에 이를 수 없으며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없다. 이른바 삼각형적 조화를 통해서만 완성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동학적 사고의 기본 특성이다. 신앙과 일상생활에서의 정성·공경·믿음으로 일관하는 삶의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다. 동학적 가정교육은 성경신을 함께 하는 바탕에서 인격완성의 실현을 목적하고 있다.

3. 三敬의 體現

천도교는 삼경의 실현을 통해 천도를 생활 속에서 구현시키고 있다. 따라서 삼경의 체현은 천도교 가정교육의 구체적 실현 목표인 생활의 도이다. 삼경사상이란 敬天·敬人·敬物의 사상을 말하는 것으로 한울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고 물건을 공경한

16) 오문환, 앞의 글, 113-114쪽.

17) 『해월신사법설』, 「성경신」.

다는 뜻이다.

삼경사상은 주로 해월의 법설로서 구체화된 것이다. “사람마다 모시고 있는 본래의 마음을 공경하게 되면 기운과 혈맥 정신이 잘 조화를 이루게 되고 사람마다 사람을 공경하면 만백성이 와서 기꺼이 모이게 되고 사람마다 물건을 공경하게 되면 만상이 거동하나니 거룩하다 공경함이어”¹⁸⁾라고 하였다. 이처럼 삼경사상은 천도교의 인생관이요 윤리관이요 도덕관이다. 과거의 윤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을 윤리로 규정하였으나 천도교의 윤리는 한울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만물과의 관계를 모두 인간의 윤리로 삼는 것이다. 윤리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로 천하만물 모두에 적용된다.

첫째, 경천이란 한울님을 공경한다는 것으로 신령한 한울님을 모시고 있는 인간으로서 본래의 마음을 스스로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항상 敬畏之心을 갖고 천심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여 待人接物에 있어 한울님은 뜻에 맞는 실천행동을 할 때 경천이 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한울님은 기뻐하시게 되고 이는 곧 한울님의 감응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해월은 “내게 모시고 있는 본래의 나의 마음을 공경치 않는 것은 천지부모에 불경하는 것이요. 나의 마음이 불안한 것은 천지부모가 불안하게 되는 것이니 나의 마음을 공경치 아니하고 내 마음을 편안치 못하게 하는 것은 천지부모에게 언제나 순종치 않는 것이니 이는 불효와 다름이 없는 일이다. 천지부모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불효가 이에서 더 큰 것이 없으니 경계하고 삼가라”고 하였다. 해월은 수운의 도가 바로 경천에 있다고 했다. 동학의 도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울님에게 지극 정성을 다하여 공경하는 것이다. 이것이 동학의 도는 효에 있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공자가 부모님에 대한 효만 이야기했다면 수운은 우주만물을 낳아주신 부모님인 한울님에 대한 효를 이야기했다.

둘째, 경인은 사람을 공경한다는 사상으로 천도교의 종지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윤리의 규범이다. 사람은 신령한 한울님을 모시고 있는 존재이므로 한울님의 존엄성과 같이 사람도 존엄한 것이다. 이에서 천도교의 사인여천의 윤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수운은 각도 후 두 사람의 여자종을 해방시켜 한 사람은 양 딸로 한 사람은 며느리로 삼았다는 것은 그 당시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인 동시에 봉건사회에 있어서 가장 천한 신분관계에 얽매어 버림받고 있던 종을 이처럼 존엄하게 대했다는 것은 경인사상을 직접 행동으로 옮긴 좋은 본보기였다. 해월도 內修道文에서 며느리를 극진히 사랑하라고 하였고, 하인을 내 자식같이 아끼라

18) 『해월신사법설』, 「성경신」.

고 하셨으며 어린아이도 한울님을 모셨으니 어린이를 욕하고 치는 것은 곧 한울님을 욕하고 치는 것이라고 교훈하여 경인사상을 강조하고 실행하였다. 해월은 “경천만 있고 경인이 없으면 이는 농사의 이치는 알되 실지로 종자를 땅에 뿌리지 않는 행위와 같다”¹⁹⁾ 그러므로 해월은 수행하는 사람의 집에 사람이 오면, 사람이 왔다고 이르지 말고 ‘한울님이 강림하였다’고 말하라 일렀다. 경천은 창공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서 전개되는 현실 속의 사람을 공경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끝으로 경물사상은 해월신사의 독특한 법설로 경천만 할 줄 알고 경인을 할 줄 모르면 이는 종자를 두고도 땅에 심지 않는 것과 같고 경천·경인만 할 줄 알고 경물을 할 줄 모르면 이는 도에 닿지 못한 것이라고 하시어 경물은 도의 극치라고 하였다.

“사람이 사람을 공경함으로써 도덕의 극치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물을 공경함에까지 이르러야 덕에 합일될 수 있나니라”²⁰⁾

해월은 “사람을 대하는 곳에서 세상을 기화할 수 있고 물건을 접하는 곳에서 천지 자연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으므로, 도를 구하는 자는 이 두 가지 길에 충실해야 할 것”²¹⁾ 이라고 한다. 세상으로부터 온갖 억압을 받으면서도 해월은 동학의 도는 세상 속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동학은 사람과 자연 사물을 떠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인하여 세상을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고 경물하여 천지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데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다. 동학의 길은 자연 생태계에 반하는 길이 아니라 자연 생태계의 질서와 법칙을 터득하여 깨닫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이기적 욕망에 따라서 자연 생태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생태계의 도를 깨달아 거기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경인이 인간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듯이 경물도 물질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다. 경물은 자연 생태계를 한울님의 표현대로 공경하는 것이다. 천도교에서 자연 생태계와 인간을 하나의 동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간과 자연은 한알의 씨앗에서 나온 두 개의 떡잎이다. 두 개의 떡잎은 다르지만 그 뿌리는 하나이다. 경물은 이 점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자연 생태계를 깊이 들여다 볼 때 그곳에서 우리는 내 안에 흐르는 우주 생명의 고동을 느끼게 된다. 자연 생태계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는 내 안의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한울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우리 마음은 ‘우주 한마음(한울님)’이 되고 ‘우주 한 기운’을 느낀다. 이러할

19) 『해월신사법설』, 「三敎」.

20) 『천도교창건사』, 78쪽.

21) 『천도교백년약사』, 128쪽.

때 자연 생태계를 공경하고 존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경물에 이르러 인간은 완전함에 이른다. 전인적 인격이 되는 것이다.²²⁾

IV. 천도교의 가정교육

1. 修行의 중시

천도교의 가정교육은 수행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즉, 천도교는 ‘믿는다’는 말보다는 ‘한다’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종교이다. 천도교 신앙은 한울님 모심을 체득하고 정성 공경 믿음으로 스승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修道’ 과정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천도교의 가정교육은 가정포덕의 과정속에서 자연스럽게 체현 됨을 목적한다. 그것은 특별한 형식과 의식에 억매이기 보다는 정성과 공경의 마음을 항상 최우선의 자세로 요구한다. 특히 천도교의 淸水의식은 그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신이나 조상에게 제사 드릴 때 여러 가지 제물을 차리고 했으나 천도교에서는 청수 한 그릇을 봉전하고 기도를 드린다.²³⁾

천도교 가정교육은 매일 저녁 9시에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청수 한 그릇을 모시어 놓고 21자 주문을 105회 묵송하는 기도식으로 시작되는 데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온 가족이 화목해지고 큰 우환 없이 지낼 수 있게 되며 특히 자녀들에게는 올바른 인생관과 국가관을 심어주는 계기가 된다. 또한 천도의 의식은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모든 행동 하나 하나를 내 몸에 모신 한울님께 정성껏 고하는 心告로 시작된다. 심고는 밥 먹을 때와 먹고 나서, 잠잘 때와 자고 나서, 어디를 갈 때와 돌아와서, 성미를 뜰 때 그리고 일체의 의식에서 수행되는데 특히 식사할 때 드리는 심고를 食告라 하여 강조하고 그것은 경물사상의 체현으로 실습된다.

심고 뒤에는 주문을 외우는 것으로 가족간의 동귀일체를 실현하는데 주문은 한울님을 위하는 글이며 한울님을 잘 모시어 天人合一에 이르는 발원문으로 주문에는 21자주문²⁴⁾, 13자주문²⁵⁾, 神師呪文²⁶⁾ 등이 있다. 주문에 대하여 수운은 “천지 무궁의 수와 도

22) 오문환, 앞의 글, 125-130쪽.

23) 청수봉전은 수운이 평소에도 봉전하였지만 특히 대구장대에서 참형으로 순도할 때 청수를 받 들고 민족과 인류를 위해 기도 드린 데서 유래한다.

24) “至氣今至 願爲大降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

25)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

26) “神師靈氣 我心定 無窮造化 今日至”

의 무극한 이치가 다 주문에 있다.”고 하여 誦呪하는 가운데 무량한 주문의 공덕을 깨달을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과 윤리규범으로 4誠命과 十毋天이 있다. 우선 4계명은 범하지 말아야 할 4계명이다. 이것은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범하기 쉬운 잘못을 항상 반성하는 의미에서 가정교육에서도 특히 강조되는 내용이다. 네 가지 계명은 다음과 같다,

번복지심(翻覆之心) 두게 되면 이는 역시 역리자(逆理者)요
 물욕교폐(物慾交弊) 되게 되면 이는 역시 비루자(鄙陋者)요
 헛말로 유인하면 이는 역시 혹세자(惑世者)요
 안으로 불량하고 겉으로 꾸며내면 이는 역시 기천자(欺天者)라.²⁷⁾

십무천은 한울님을 모신 존재로서 그 한울님에 대한 자세를 말한다.

- 一. 毋欺天하라. (한울님을 속이지 말라)
- 二. 毋慢天하라. (한울님을 거만하게 대하지 말라)
- 三. 毋傷天하라. (한울님을 상하게 하지 말라)
- 四. 毋亂天하라. (한울님을 어지럽게 하지 말라)
- 五. 毋天天하라. (한울님을 일찍 죽게 하지 말라)
- 六. 毋汚天하라. (한울님을 더럽히지 말라)
- 七. 毋餒天하라. (한울님을 주리게 하지 말라)
- 八. 毋壞天하라. (한울님을 허물어지게 하지 말라)
- 九. 毋厭天하라. (한울님을 싫어하게 하지 말라)
- 十. 毋屈天하라. (한울님을 굴하게 하지 말라)²⁸⁾

천도교의 가정에서는 이러한 수행과정을 통하여 가족구성원의 반목이나 갈등을 해소하고 가정의 화목과 나아가 천도실현의 입문을 하게 된다. 이처럼 수심정기를 가지고 정성과 공경에 의한 수행과 주문 誦呪를 하고 誠·敬·信을 체행하면 濟人疾病의 복, 長生の 복, 萬事如意的 복, 道成德立의 복, 布德廣濟의 복의 다섯 가지 큰복을 누리게 된다고 교육한다.

2. 夫和婦順

천도교 가정 교육은 어른들의 성실한 생활자세 속에서 그것이 아랫사람들에 감화되

27) 『용담유사』, 「도덕가」.

28) 『해월신사법설』, 「십무천」.

어 그들에 체현되도록 하는데 있다. 천도교에서 부부의 화순함을 제일의 가정덕목으로 치는 이유도 부부의 생활모습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훌륭한 가정교육도 그것을 주도하는 부모가 모범을 보이지 못한다면 의미 없는 잔소리에 그치고 만다.

부화부순은 해월이 포덕 26년 7월 홍해에서 도를 해설할 때, ‘우리 도를 통하고 통치 못하는 것이 내외의 화순’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도의 ‘제일가는 종지’라고 하였다. 천도교사상의 원리상 종지가 인내천이라 할때 인내천은 본체론적인 것이고, 인내천이 현실적으로 적용되어 나타난 것이 부화부순이다. 그래서 부화부순을 제일 가는 종지이다. 부화부순에 대해서 해월은 “내외가 화순하면 천지가 안락하고 부모가 기뻐하고 천지가 편안하고 즐거워하며 한울이 감응한다”²⁹⁾고 하였다. 그리고 이 부화부순에서 부인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로 敬天, 奉祀, 接賓, 製衣, 調食, 生産, 布織의 7가지를 들었는데, 모두다 어렵고 힘들고 교양과 기능을 요하는 일들인 것이다. 그리고 또 다시 ‘부인의 손에 달리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며 ‘부인은 일가지주’라고 하였다.

부인을 한 집안의 주인으로 규정한 것은 당시 봉건 사회의 가부장적 질서와 여필종부의 윤리를 넘어선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한다. 이 주인의식을 주장한 것은 정신개벽과 통하는 것이며 민족개벽, 사회개벽을 이루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주인의식이 없으면 한 가정의 번영을 이룰 수 없고 가정의 번영은 정신개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민족의 번영을 가져오는 민족개벽, 사회개벽이 이루어져서 지상천국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의 출발은 가정의 부인들의 주인의식함양에서부터 라는 것이다.

夫婦가 和順함은 우리 道의 초보니 道의 通不通이 도무지 内外의 和不和에 있나니라. 내외가 화하지 못하고 他人을 화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집에 불난 것은 끄지 않고 타인의 불을 끄는 자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부인을 화하지 못하면 비록 날로 三牲의 用으로써 天主를 위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感應할 바 없느니라. 부인이 혹 夫命을 좇지 아니하거든 정성을 다하여 拜하라 溫言順辭로써 一拜二拜 하면 비록 盜跖의 惡이라도 감화가 되리니라.³⁰⁾

수운은 동학도의 근본을 ‘家和’에 두었던 고로 제자 도인들에게 부인수도를 간절히 권고하고 몸소 실천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부인수도를 위하여 ‘교훈가’, ‘안심가’, ‘도수사’등을 지어 상고하고 실천하게 하였다. 그리고 도인이 실행해야 할 첫 번째가 부부

29) 『해월신사법설』, 「부화부순」.

30) 『해월신사법설』, 「부화부순」.

의 화순이고, 도인의 도가 통했느냐 아직도 통하지 못하였느냐도 모두 부부가 화하나 그렇지 못하나에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부부간의 和不和는 남편에게 달려 있음을 설파하여 아내를 남편의 위력과 포학으로 다스렸던 전날의 생각과 행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거만하고 자존하는 도인이 많다”고 한 것은 도를 한다는 사람이 아직도 부인을 완력으로 다스리고 그 인격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지아비는 아내를 온언순화로서 감화를 시킬 수 있어야 하고 아내 앞에서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아내 인격을 최상으로 높이는 자세를 실천하라는 것이다. 그런 고로 지아비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정성을 다하여 아내에게 절을 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부인과 소아의 인격을 존중하면 그들로부터 배울 것도 있게 된다고 하였다.³¹⁾

3. 여성교육

천도교의 평등사상은 시천주와 인시천, 인내천으로 이어지면서 인간의 근원적인 평등주의로 발전하였다. 그것은 특히 가장 소외된 계층이었던 여성의 존엄과 역할을 각시시키고 나아가 역사의 주체로서 자리할 수 있는 자부심을 심어주었다. 천도교의 가정에서의 여성교육도 이런 측면에서 여성의 권리신장과 함께 의무를 다하는 주인의식 함양에 집중되었다.

여성이 한집의 주인이 되게 하는 길을 천도교는 우선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서 찾았다. 해월은 “부인이 부패하면 아무리 날마다 세 가지 짐승(소, 양, 돼지)으로 봉양할지라도 한울이 반드시 감응치 아니하리라” 하였다.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기능을 확대해 주어야 부패하지 않고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기능확대의 기초작업으로 여성의 한 쪽으로 쏠리고 너그럽지 못한 편성을 고치라며 편성을 고치려면 교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양은 교육에 의해 향상되어지는 것이므로 여성교육의 강화를 뜻한다.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 여건상 우선 가정교육의 강화를 통해 그것을 성취하여야 한다며 손수 「內則」과 「內修道文」을 쉬운 우리 밀로 지어 모든 도가택 부인들이 지켜야 할 준칙으로 반포하였다.

그것들은 우선 가정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천주와 사인여천의 근대적 윤리차원에서 정리한 것들이었으나 근본적으로 여성을 사회의 주체로 자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대등한 수준의 교육기관이나 교육활동, 교육기회, 교육의 질적 내용 등

31) 박용옥, 「해월 최시형의 근대지향적 여성관」, 『해월최시형 순도100주년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1997.9.

모든 면에서 남자와 대등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³²⁾

또한 천도교는 1907년 天民寶錄을 만들 때 전국 교구의 여성에게 남자와 같은 이름을 짓도록 했다. 당시까지도 여성은 정식이름 없이 ‘김씨’나 ‘이씨’ 등으로 기억되거나 ‘청주댁’이니 ‘개성댁’정도로 대부분이 호칭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천도교는 가정에서부터 여성에게 정식이름을 불러주는 운동을 전개했고 그것이 오늘에 이르는 것이다. 이밖에도 천도교는 여성의 의식개혁과 지위향상을 위한 사회단체 건립 그리고 많은 잡지의 간행을 통한 여성교양교육의 강화를 지속해 왔다. 천도교의 여성교육은 여성이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의 주인의식과 사회적 윤리관을 투철하게 가질 때 하나의 인간으로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모든 면에서 남성과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부화부순이 이루어지는 가정, 보국안민·광제창생의 개벽을 열어 감을 목표로한다.

4. 태교

천도교의 가정교육에서 태교를 중시하는 것은 시천주의 인간존엄에 대한 경건함에서 연유한다. 이미 하나의 생명체로 잉태된 순간부터 그는 한울님을 모신 존재가 되므로 훌륭한 태교는 그 존재의 기화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해월의 「내칙」은 태교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다. 그것은 약 400여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태모의 섭생, 건강관리, 정신생활 등이 중심내용을 이룬다. 태교란 태아가 완성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태아를 품은 태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즉 태모의 섭생과 심성 등이 태아에게 직접 연결되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태교는 일차적으로 태모의 교육이 되는 것이다.

동학은 철저한 생명존엄 철학이다. 특히 사람 자체가 바로 한울님을 모시는 도구요 집이요, 더 나아가 사람이 곧 한울님이다. 해월은 시천주의 시기를 태아시로부터라고 인식하였던 까닭에 태모의 마음쓰기와 삶의 태도 여하에 따라 태아도 養天主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내칙에 제시된 태교의 첫째는 섭생인 바, 반드시 금기하여야 할 음식은 일체의 육종을 먹지 말라는 것이다. 해어나 우렁 가재도 먹지 말고 심지어 고기 냄새조차도 말지 말라고 하였다. 이처럼 육종류를 태모의 중요한 금기식으로 한 이유는, “아무 고기라도 먹으면 그 고기가 기운을 타 사람이 나면 모질고 탁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마음과 몸을 바르게 함으로써 태아의 심신이 올바르게 자라게 하라는 것이다. 내칙에 제시된 태모의 행동거지에 관한 것들, 즉 앉고 자고 서고 외출하는 등의

32) 천도교의 많은 육영사업 중에서도 순 여성교육기관으로 동덕여학교, 양덕여학교, 대구의 명신여학교 등의 사학을 운영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행동거지를 바르게 하고, 남을 속이는 것과 같은 사악한 일을 일체 하지 말라는 것이다. 마음과 몸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련을 갖는다. 마음이 바른 사람은 그 행동이 자연히 올바르게 되는 것이다.

셋째는 태아와 태모의 건강관리이다. 태모가 무거운 것을 들거나 무거운 것을 이면 아랫배에 힘이 주어져 유산의 불행을 겪을 수도 있고 또 태아 성장이 부진하게 됨은 오늘의 의학에서도 주장되는 상식이다. 태아도 이미 시천주하였으므로 그 생명체가 아무 상함 없이 소중하게 성장되도록 해야 한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방아쪼는 것과 같은 힘든 일을 삼감은 물론 가벼운 것을 들 때도 무거운 것을 들 듯 하라고 하였다. 이것은 매사에 신중함을 보이는 태도를 견지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태교는 태모 자신뿐만이 아니라 태모 주변 사람들의 애정 어린 보살핌이 함께 따라야 함을 더불어 말한 것이다.

해월은 태어난 자녀가 수명이 짧아지고 병신으로 태어나는 것 등은 모두가 태교를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신랄하게 경계하였다. 그리고 내칙을 잘 봉행하면 문왕 공자와 같은 성인을 탄생시킨다고 하였다. 내칙의 중심사상은 복중 태아를 시천주의 제 1단계의 인격체로 인정하여 그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키워간다는 것이다.³³⁾

5. 어린이 교육

천도교 가정교육의 어린이교육은 어린이 존엄성에 대한 인정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특히 여성운동과 함께 어린이해방운동으로 이어져 인간해방의 근대화 의식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해월은 어린이의 말이라도 한울님의 말씀으로 알라고 가르쳤다.³⁴⁾ 그는 「내수도문」에서 어린이 존중심을 고취하여

모든 사람을 한울님과 같이 여기고 손님이 오면 한울님이 오셨다고 하라. 어린이를 때리지 말라. 이것은 한울님을 치는 것이다.³⁵⁾

라고 하여 어린이를 때리는 것이 한울님을 치는 것과 같다고 설파했다. 이는 천도교의 시천주·사인여천의 구체적 실현이었다. 즉, 그 자신 평소에 어린이들을 어른과 똑 같은 인격체로서 공경하여 맞절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해월은 시천주한 어린이가 올바르게 양친주 하도록 어른이 지도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였다. 가정에서 어린이

33) 박용옥, 앞의 글.

34) 『東學 天道敎略史』.

35) 『해월신사법설』, 「內修道文」.

교육에 대한 해월의 태도에 관한 다음의 내용을 통하여 그의 어린이교육관을 살펴볼 수가 있다.

꼭게 기르지 말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어렸을 때의 고생은 일생 행복의 거름이다. 너무 호강으로 기르는 데서 버림의 소년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또 옷을 그렇게 숨을 많이 두지 못하게 하셔서 몸이 덥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일찍 어린 아해들이 가지고 놀던 돈을 내버림을 보시고 도리어 칭찬을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兒時부터 돈을 알아서는 못쓰는 것이니 될 수 있는 대로 아해들에게 돈 관념을 부쳐주지 말아야 한다” 고 하셨습니다.³⁶⁾

이를 통해 천도교의 어린이 교육이 결코 인격존중이라는 미명하에 자유방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스스로 양천주를 깨닫는 순간까지는 어른들에 의한 철저한 훈육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솔선수범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해월 스스로 철저한 효의 실행을 보였을 뿐 아니라 어린이에게도 꼭 경어를 쓰는 등 대하기를 극진히 한 점에서, 또 일제하의 문화운동으로 전개된 천도교의 소년해방운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6. 환경교육

천도교의 특징 중 하나는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에 있다. 특히 해월은 자연과 인간을 하나의 동포(物吾同胞)라 하여 그 동안 인간생존의 수단으로 취급되던 환경이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아니 그 내면에는 인간과 같이 한울님의 우주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천도교의 환경교육은 가정교육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천도교에서는 가정에서부터 천하만물이 시천주 아님이 없다하며 “천지부모에 효성하라.” “땅 아끼기를 어머니 살같이 하라.” “물을 멀리 뿌리고 침을 멀리 뱉고, 코를 멀리 푸는 것은 천지부모님 얼굴에 하는 것이니 각별히 조심하라.”하여 우주의 질서를 간직하고 있는 환경 친화적 학습을 시키고 나아가 환경이라는 표현보다는 생명이라는 호칭을 부여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의 소중하듯이 자연의 생명도 존중해 주자는 의미이다. 또한 십무천의 천을 자연 또는 환경으로 바꾸어 교육시키기도 한다.

천도교의 환경교육은 철저한 위생교육이기도 하여 결국은 인간을 위한 교육이기도 한다. 「내수도문」의 2,4,5항목이 특히 위생적 생활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것은 집안에

36) 《天道教會月報》246호, 29쪽, (박용욱, 앞의 글 재인용).

서 유용한 내용이 되고 있다. 더러운 물이나 오물은 반드시 땅을 파고 물을 것, 음식판리에 철저히 할 것, 청소를 철저히 할 것 등이 모두 환경을 중시하는 천도교의 가정교육에 포함되는 것들이다.

V. 맺는 글

천도교는 유교적 윤리를 모두 폐하려는 것이 아니다. 유교윤리에 나타난 시천주론에 위배되는 불평등적 인간 대우에 관한 것을 개혁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하고 남편을 인격적으로 공경하여 家和를 이루는 것은 만고의 진리일 수밖에 없다. 또한 천도실현은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보는 것이 천도교의 입장이고 보니 천도교 가정교육은 철저한 가정에서부터의 실천을 강조하고 실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천도교는 수도의 기본정신을 가화에 두고 충효를 실천하도록 가르친다. 천도교에서 도가완성과 함께 보국안민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운은 득도 후 가정포덕을 가장먼저 실천하여 부인과 자식 그리고 집안의 하인들에게 천도를 실행하였다. 그것이 보국안민과 광제창생의 첫걸음이었다. 동학의 평등적 인간관은 이전 사회에서 차별되고 미천한 취급을 받던 부녀와 어린이에게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두어 도인들에게 법설을 할 때마다 부녀와 어린이도 평등한 한울님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동학의 道通의 근본을 부부의 평등에 두고 모든 도인들은 가정 안에서 自尊과 완력으로 군림하던 태도를 완전히 벗어 던지고 부인 앞에서 절을 하면서 자신을 최저로 낮추라고 하였다. 인간평등론의 입장에서 부부의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한가정의 실질적인 주인은 주부라고 주장하면서 주부의 가정에서의 역할을 중요시하였다. 그것이 侍天主와 事人如天의 출발점이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가정교육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될 것임을 천도교는 자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천도교 가정교육은 수심정기를 가진 수행을 중시한다. 그것은 성·경·신을 훈련하는 것이고 경천·경인·경물의 사상을 체현하는 과정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상적인 인격자를 완성하는 천도교의 가정교육은 그래서 시작은 있지만 종결이 없는 과정이 된다.

그러나 천도교 가정교육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어른들의 모범이다. 이른바 ‘모범의 교육(teaching by example)’보다 훌륭한 교육방법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수운의 가정포덕에서부터 해월의 사인여천의 삶, 의암의 인내천의 삶까지 모두 천도교인의 모범이

되고 있다. 도척이 감동할 때까지 절하라는 천도교에서 가정폭력이 나올 수 없고, 어린 김창수(백범 김구)를 감화케 하는 어른들의 사인여천에서 문제아가 나올 수는 없는 것이다. 천도교를 사람을 살리는 도라고 하는 한, 이러한 가정교육의 이념과 자세는 끝까지 견지되어 21세기 희망의 종교로, 사회운동으로 거듭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大學』
- 『동경대전』
- 『東學 天道敎略史』
- 『용담유사』
- 『천도교백년약사』
- 『천도교창건사』
- 『해월신사법설』
- 노태구(1995), 『세계화를 위한 한국민족주의론』, 서울 : 백산서당.
- 박용옥(1997), 「해월최시형의 근대지향적 여성관」, 『해월최시형 순도100주년기념 학술 기념 9』.
- 부산예술문화대 동학연구소 엮음, 『해월 최시형과 동학사상』, 예문서원, 1999.
- 申午鉉(1983), 「비판적 입장에서 본 유교 윤리」, 『한국인의 윤리관』,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오익제(1984), 「동학혁명운동의 현대적 재조명」, 이현희 엮음, 『동학사상과 동학혁명』, 서울 : 청아출판사.